

제 목	국 문	부적절 재원의 이유에 대한 연구		
	영 문	The Epidemiology of Delays in a Teaching Hospital		
저 자 및 소 속	국 문	김윤 <sup>1)</sup> , 이진세 <sup>1)</sup> , 이상일 <sup>2)</sup> , 김창엽 <sup>1)</sup> , 김용익 <sup>1)</sup> , 신영수 <sup>1)</sup> 1)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2)울산의대 예방의학교실		
	영 문	Yoon Kim, Kun Sei Lee, Sang Il Lee, Chang Yup Kim, Yong-Ik Kim, Youngsoo Shin <i>Department of Health Policy and Management, College of Medicine, Seoul National University,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College of Medicine, Ulsan University</i>		
분 야	의료제공자행태 및 병원관리	발 표 자	김 윤 (일반회원)	
발표 형식	구 연	발표 시간	15분	
진행 상황	연구완료 ( 0 ), 연구중 ( ) → 완료 예정 시기 :           년    월			

1.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입원 진료 과정에서 부적절한 재원일이 발생하는 이유를 밝히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 먼저 재원일의 적절성 수준을 평가하고, 부적절 재원일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고자 하였다.

2. 연구 방법

1개 대학병원의 내과계 2개 진료과와 외과계 4개 진료과를 대상으로, 1993년 1월 1일에서 1월 31일 사이에 재원한 모든 환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시행하였다. 조사 대상 환자수는 627명, 조사 대상 재원일수는 6,479일이었다.

먼저 적절성 평가지침(Appropriateness Evaluation Protocol)을 적용하여 재원일의 적절성 여부를 먼저 판단한 후에, 부적절 재원일에 대하여는 이유목록(Delay Tool)을 적용하여 구체적인 부적절 재원의 이유를 파악하였다. 1년간의 임상경험을 가진 의사 1인이 매 2~3일마다 정기적으로 해당 병동을 방문하여 의무기록을 검토하는 입원 중 검토(concurrent review)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검토자의 숙련화에 따른 도구적 요인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고자 일부 환례에 대하여 퇴원 후 검토(retrospective review)의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한 후, 두 자료간의 판단의 일치도를 평가하였다. 부적절 재원이유의 주범주에 대한 판단의 전반적 일치도는 63%, 카파 통계량은 0.33이었다( $p < 0.01$ ). 전체 재원일에서 이유목록의 주범주별로 부적절 재원일이 차지하는 분율을 각 진료과별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부적절 재원일의 규모가 큰 이유목록의 주범주에 대하여는 이를 다시 중범주별로 세분하여 부적절 재원일의 분율을 제시하였다.

### 3. 연구 결과

재원일 부적절성은 진료과별로 전체 재원일의 23.3-61.8%를 차지하여 진료과간에 큰 변이를 나타냈다. 내과계에서는 의료진과 관련된 대기로 인한 부적절 재원일의 규모가 각각 29.3%와 51.6%로 가장 컸고, 외과계에서는 의료진과 관련된 대기(3.6-34.7%)와 함께 수술과 관련된 대기(7.3-15.8%)로 인한 부적절 재원일의 규모가 가장 컸다.

의료진과 관련된 대기를 다시 중범주별로 세분하여 부적절 재원일의 규모를 살펴본 결과, 보수적 진료로 인한 부적절 재원일이 전체 재원일의 3.1-46.4%로 가장 중요한 부적절 재원이유로 나타났다. 수술과 관련된 대기를 다시 중범주별로 세분하여 살펴본 결과, 외과계 환자의 조기입원(3.1-7.1%)과 단순 수술 일정 대기(1.7-5.4%), 주말로 인한 일정 대기(2.0-5.2%)가 외과계의 중요한 부적절 재원이유로 나타났다.

### 4. 고찰

본 연구 결과는 병상 이용에 있어서 상당한 규모의 비효율성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는 대부분 의료진과 관련된 대기나 수술과 관련된 대기로 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적절한 병상 이용은 국가 및 보험자, 병원, 환자측 모두에게 불이익을 초래하므로 이러한 비효율성의 원인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전체 부적절 재원일의 수준과 이유목록의 주범주 또는 중범주별 부적절 재원일의 규모는 진료과간에 큰 변이를 보이고 있어, 이의 의료진의 진료행태와 관련성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부적절 재원이유를 파악하기 위하여 이용한 이유목록은 그 신뢰도와 타당도를 충분히 인정받기 위해서는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그리고 본 연구의 결과는 1개 병원만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연구 결과가 우리나라의 다른 병원들에도 적용된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이러한 연구 결과를 병상 운영의 효율화 방안으로 직접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이유목록을 더 구체화하고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